

산지천 여전히 오폐수 유입 연외천은 10년 전보다 악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12개 하천 수질 10년 비교 검사 전문가 “우수·오수 분리 하수관거정비사업 점검 필요”

도내 12개 우수하천 가운데 산지천과 연외천에서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이 다른 하천에 비해 높게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은 자연환경에서도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항온동물의 분변에 대량으로 존재하며, 식수의 미생물학적인 오염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세균이다. 분원성대장균은 분변에서 오염되어 검출되는 것으로 병원성이나 기생충,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분기와 최근 10년간 도내 12개 우수하천 수질검사(9개 항목)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TOC),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등 6개 항목에서 대부분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의 I 등급을 나타냈다. 총인(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3개 항목에서는 대부분 I~III등급(매우 좋음~보통)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천의 일반생태계 기준인 보통등급의 10년간 조과율을 보면 수소이온농도는 1.8%, 용존산소는 0.2%, 총인은 0.8%, 총대장균군은 1.0%, 분원성대장균군은 0.4%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내 12개 하천 중 산지천과 연외천의 경우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10년동안 III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외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올해 1분기 산지천의 총대장균군은 1500/100ml, 분원성대장균군

640/100ml가 검출됐다. 지난 2014년 수질검사에서는 올해보다 많은 총대장균군 1600~5400/100ml, 분원성대장균군 110~790/100ml가 검출된 바 있다.

연외천의 총대장균군 5300/100ml, 분원성대장균군이 400/100ml로 III등급 수질을 초과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총대장균군 130~920/100ml, 분원성대장균군은 11~49/100ml가 나왔다. 연외천 수질은 10년전보다 악화된 것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외천의 총대장균군이 지난해 동분기 III등급에서 올해 III등급을 소폭 초과한 것은 하천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과 가뭄에 따른 수량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현상으로 보고 있다.

도내 수질전문가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산지천과 연외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고대복기자



어버이날 앞둔 경로당 웃음꽃 활짝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부녀회원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하우스온주 5월 출하량 증가할 듯

농촌경제연구원, 올해 생산량 평년보다 6.5% 증가 예상
5월 도매가 3kg에 2만7000~3만1000원 전망... 작년보다 ↓

제주 하우스온주 출하가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된 가운데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온시기도 앞당겨져 출하시기도 작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5월 가격은 가격이 좋았던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5월 하우스감귤 관측정보’를 통해 올해 하우스온주 재배면적은 418ha로 작년(415ha)과 평년(366ha) 대비 각각 0.7%, 1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생산량도 평년(2만5497ha)과 작년(2만5775ha) 대비 각각 6.5%, 5.3% 증가한 2만7152t으로 내다봤다.

5월 출하될 하우스온주는 가온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작년보다 31.4% 증가하고, 6월 이후에는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년 하

우스온주의 월별 출하 비중을 보면 5월에 4.5%, 나머지 95.5%가 6월 이후에 출하됐다.

출하량 증가로 5월 도매가격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작년 5월 서울 가락시장의 3kg(상품) 평균 경락가격은 3만3700원으로 평년(2만8400원)보다 높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낮은 2만7000~3만1000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1~3일 평균 경락가격은 3만9100원이었다.

제주 하우스온주 재배면적은 몇 해 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 566.5ha까지 증가했던 적이 있는 하우스온주는 난방비 부담 등으로 한동안은 감소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250ha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어 2016년 284ha로 증가로 전

환한 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노지온주 면적 감소와 맞물리며 점차 증가 추세다.

올해 노지온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만4199ha, 월동(비가림) 온주는 1.2% 감소한 878ha로 전망되고 있다. 천혜향과 레드향 등 만감류는 1.6% 증가한 4229ha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온주감귤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만감류로 품목을 전환하며 올해 만감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노지온주 개화는 작년보다 7일, 평년보다 5일 정도 빨라 최초 개화일은 제주시 4월 25일, 서귀포시 30일, 만개일은 각각 5월 1일, 5월 10일이다. 겨울과 봄 기온이 높아 발아와 생육상태는 원활하다고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 5월 역대급 폭우... 4면 / 연복로 22년 만에 완전 개통... 5면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추진 박차

도-LH-제주개발공사 업무협약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인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등 주거정책 실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도개발공사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LH,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4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추진 협약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계층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소득계층·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발굴 시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거정책은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분양 전환형 주택, 일반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건설 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고품질 복지주택,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49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으로 총 13만1000가구에 2329억원을 지원한다. 강대복기자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농업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2023년에도 제주농협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
애월농협조합장 김병수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제주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

함덕농협조합장 현승중
김녕농협조합장 오충규
제주축협조합장 천창수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
구좌농협조합장 윤민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제주시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 의장 김진문



농협 제주시지부 지부장 이춘협